

조선미술박물관을 찾아서

섬세하면서도 아름다운 조선화작품들

전후 공화국의 화가들은 절세위인들께서 마련해주신 주제미술의 대화원에서 인민의 사랑을 받고 국보적 가치가 큰 조선화작품을 수 많이 창작하였다.

조선화 《5월의 농촌》이 시야에 비껴왔다. 정중여는 조선화의 전통적 기법에 충실하면서도 그것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켜 밝고 선명하며 섬세한 형상을 창조한 화가라고 한다.

《이 그림은 화가 리석호선생이 그린 조선화 《소나무》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조선화의 물고기법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완성하는데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함으로써 현대조선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김금희강사는 조선화 《소나무》는 리석호화가의 필치가 가장 원숙하였던 시기에 창작된 작품으로서 소나무의 역센 기상을 유감없이 보여주고있다고 설명하였다.

《유럽의 어느한 나라 전람관에 김용준화가가 그린 이 《춤》이 전시되었을 때 그 나라의 관록있는 미술가는 작품의 신비한 예술적경상에 감탄한 나머지 모자를 벗고 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교육발전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해간다

공화국의 교육부본 일꾼들과 교육자들이 교육사업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이런 경연은 높은 속독술을 소유한 인재들을 적극 찾아내고 학생들속에서 속독력의 불리일으키는 계기로 되었다.

한편 평양시안의 유치원들에서 교육교양의 첫 공경인 유익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수방법들과 수단들을 적극 도입하고있다.



창광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의 지능이 날로 높아지고 교육내용과 방법, 수단들이 보다 현대화되는데 맞게 교육지원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교수에 적극 구현하였다. 어린이들이 로보트를 조종하면서 길찾기도 하고 기능놀이도 하고 컴퓨터를 다루면서 수업내용을 인식하고있다.

천연기념물들이 새로 등록되었다

얼마전 함경북도 명천군 거문리(당시 양령리)에서 발굴된 폭지이발코끼리화석과 양덕샘물 등이 천연기념물로 새로 등록되었다.

또한 신생대 제3기 중신세에 열대, 아열대에서 살던 동물들이 조선에도 퍼져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고생물의 진화를 연구하는데서 매우 가치있는 것으로 되고있다.

폭지이발코끼리(Go-photherium)화석은 신생대 제3기 중신세층에서 발견되었다. 주체65(1976)년 11월 28일 김일성종합대학 자연박물관을 찾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이 화석을 보아주시고 인류진화발전사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볼 필요가 있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또한 신생대 제3기 중신세에 열대, 아열대에서 살던 동물들이 조선에도 퍼져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고생물의 진화를 연구하는데서 매우 가치있는 것으로 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에서 학명을 새로 고쳐하여 천연기념물로 등록한 폭지이발코끼리화석은 현재 대학의 자연박물관에 보존되어있다.



기와 굽기 풍습 (1) 글 전철호, 그림 리성일

조선봉건왕조중엽 함경도 함흥부의 향교마을에서 있는 일이라고 한다. 고을의 향교가 자리를 잡았서 향교마을이라 불리우는 동흥산기슭의 이 동네에 갈자리를 엮어 팔아 생계를 잇는 사람이 살고있었다.

《동동》을 거둥거둥 부르며 갈자리를 하나 엮어 팔아놓고 또 하나를 엮어나가려는 데 갑자기 우지끈 딱- 하는 소리가 버락치듯 들려왔다.

선 홍달은 《아이쿠!》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소리에 깜짝 놀란 안해가 황급히 방에서 뛰쳐나왔다.

《이보라구, 마누라. 마른 하늘에서 버락치게 아니요?》 겨우 정신이 들었는지 안해는 몸을 떨며 겁먹은 소리로 대꾸했다.

《그만급 집을 다시 짓자 하였는데 끝내 말을 듣지 않더니 이런 벌을 당했구려.》 홍달은 안해의 푸념소리에 할 말이 없었다.

《아이구, 이제 무슨 날벼락이람. 예고, 이 일을 어쩌면 좋수?》 안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아우성을 쳤다.

《오냐, 아범아, 내 말을 자자구 잘 새겨두겨라. 난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할바를 제대로 못했구나. 일찌기

《아범님!...》 《오냐, 아범아, 내 말을 자자구 잘 새겨두겨라. 난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할바를 제대로 못했구나. 일찌기

《아범님!...》 《오냐, 아범아, 내 말을 자자구 잘 새겨두겨라. 난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할바를 제대로 못했구나. 일찌기

우리 민족의 고상한 색깔

우리 선조들이 예로부터 사랑하고 면면히 이어온 민족의 색깔은 아름답고 고상하며 강의하고 정의로운 그리고 용감하고 절제바른 우리 민족의 성격과 품성, 정서와 기호가 반영되어있다.

우리 선조들은 연하고 밝은색을 좋아하였다. 오랜 역사적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색채에 대한 민족적인 미감은 민족우에도 반영되게 되었다.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옷을 하나 해입어도 흰색이나 은은하고 유순한 색깔의 천으로 해입었다. 겨울철이 되면 포근한 색깔의 옷을 해입었다. 남자들은 계절에 따라 흰색을 비롯한 밝고 은은한 색깔로 옷을 해입곤 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연하고 밝은색을 좋아하였다. 오랜 역사적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색채에 대한 민족적인 미감은 민족우에도 반영되게 되었다.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옷을 하나 해입어도 흰색이나 은은하고 유순한 색깔의 천으로 해입었다. 겨울철이 되면 포근한 색깔의 옷을 해입었다. 남자들은 계절에 따라 흰색을 비롯한 밝고 은은한 색깔로 옷을 해입곤 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옷을 하나 해입어도 흰색이나 은은하고 유순한 색깔의 천으로 해입었다. 겨울철이 되면 포근한 색깔의 옷을 해입었다. 남자들은 계절에 따라 흰색을 비롯한 밝고 은은한 색깔로 옷을 해입곤 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옷을 하나 해입어도 흰색이나 은은하고 유순한 색깔의 천으로 해입었다. 겨울철이 되면 포근한 색깔의 옷을 해입었다. 남자들은 계절에 따라 흰색을 비롯한 밝고 은은한 색깔로 옷을 해입곤 하였다.

2022년 최우수발명가상수상자들 (2)

평양건축대학 공과대학원무원 부원장 송영일은 건축공학부문의 권위있는 공과대학자이며 교수, 박사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그는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여러건의 발명을 하였다.

《철근콘크리트구조의 보이라후부연도판을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개조하여 수십년이상 리용할수 있게 한 발명이다. 이 발명들의 도입으로 여러 화려발전소 등에서는 제기되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상건설에서 공사기일을 단축하고 국가에 막대한 이익을 주었다.》



황해남도정보통신국 실장 리성남은 농업생산의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실현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정보기술제품들을 개발하여 많은 농장들에 도입하였으며 각종 통신설비와 장치들을 제작하여 정보통신사업을 개선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10일 제2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장을 돌아보시면서 백화점에서 평양시민들에게 양덕샘물(당시 동양샘물)도 많이 가져다 봉사해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단하는 프로그램과 태양빛전지를 리용한 충전장치 등은 그의 재능과 높은 실력을 보여주는 지적제품들이다. 그는 말단용다기능수자식용침기와 포전종합측정장치를 제작하여 농장들에 실리있는 통합경영정보화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샘물에는 적합한 량의 칼슘과 소화에 알맞춤한 량의 수산화산도 들어있다. 샘물을 정성적으로 마시면 동맥경화, 암, 심장병, 뇌졸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다.

본사기자 리성남 논비의 절수영양상태를 진 본사기자